

뚝뚝 떨어지는 휘발유값... 1400원대 진입

국제유가 급락·환율 하락

광주 1473원 전국 최저

전남도 1494원... 계속 하락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몇 달간 오르내렸던 원·달러 환율마저 하락세를 보이면서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하 1당) 1473.82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7개월여 만에 1400원 시대를 맞았다. 특히 무안 지역 휘발유 최저 가격은 1415원으로 1300원대 진입을 눈 앞에 두는 등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20일 인터넷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남 대비 0.56원 내린 1499.50원

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휘발유 가격은 1473.82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산구와 남구의 휘발유 최저가는 1427원으로 광주지역 다른 지역보다 저렴했다. 동구의 휘발유 최저가는 1437원, 북구는 1429원, 서구는 1435원 가량이었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9일 1499.37원을 기록한 이후 며칠째 1500원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1400원대 진입은 지난 5월 4일 1497.64원 이후 4개월여만이다.

전남지역의 휘발유도 싸지고 있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평균은 1494.57원으로 전국 평균을 살짝 밑돌았다.

지역별 휘발유 최저가는 무안 1415원을 비롯해 강진 1465원 고흥 1495 곡성 1412

원, 광양 1435원 구례 1469원, 나주 1445원, 담양 1439원, 목포 1445원, 보성 1441원, 순천 1440원, 신안 1490원, 여수 1427원, 영광 1479원, 영암 1445원, 완도 1500원, 장성 1435원, 장흥 1465원, 진도 1490원, 함평군 1435원, 화순 1459원, 해남 1470원이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부터 7일 연속 하락하면서 1당 1400원대에 진입했다.

지난 16일 기준 부산 사상구의 한 주유소가 1당 1393원에 휘발유를 파는 등 이미 1500원 미만 주유소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4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7일(1499.25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지난 1월 1일 1600원에 근접한 가격(1587.31원)으로 새해를 맞았던 휘발유 값

은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로 1월 17일 1496.70원으로 1400원대에 진입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환율도 중요한 변수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일정기간 변동이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20% 상승하면 정유사 공급 가격에는 20%만큼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1194원에서 이달 19일 1121원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7% 넘게 하락했다. 저유가에 환율 급락이라는 요인이 생긴 셈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국제 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이란 공급 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국내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9.36 (+9.09)
-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2)
- ▲ 코스닥 691.21 (+6.92)
- ▲ 환율 (USD) 1131.00원 (+10.00)

청소·경비 공공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일반용역계약조건’ 개정

사후정산제 도입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용역임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2분의 1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기간 중 공공용역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가 줄어들어 고용안정이 정착되고 정부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 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버스타고 남도의 멋·맛 느껴세요”

금호고속 ‘남도투어’ 운행

광주·5개 시군 관광지 연계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과 광주시가 나주 등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빛고를 남도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빛고를 남도투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도심 관광과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등 5개 시·군의 자연관광을 결합한 남도 투어 버스타다.

공휴일과 매주 토·일요일 ‘광주·담양·장성’, ‘광주·나주·함평’, ‘광주·화순’ 방면 등 총 3개 코스로 운영되며, 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각 코스로 상세한 역사와 관광안내를 하고 있다.

모든 코스는 송정역에서 출발해 유·스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들린 후 각 지역별 대표 관광지를 거쳐 되돌아온다.

담양·장성 코스는 오전 8시20분 출발해 장성 백양사, 담양 죽녹원, 환벽당누정체험, 소재원을 운영하고, 나주·함평 코스는 오전 8시 20분 출발 후 국립나주 박물관, 황포돛배, 나주곰탕거리, 함평 양서파총류생태공원, 양림역사문화마을을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3000원이며, 입장료, 황포돛배, 김치체험료와 식비는 개인부담이다. 시간표 확인과 사전예약은 금호고속 버스타버퀴(www.kumhoaround.com)를 통해 가능하며 유·스퀘어에서 현장에매도 가능하다. 문의 062-360-85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차 쏘나타 ‘올해의 차’

사우디 오토 선정

현대자동차는 쏘나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전문지 ‘사우디 오토’가 선정한 ‘올해의 차’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수상으로 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에서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쏘나타는 지난해 중동에서 전년보다 6% 증가한 2만8천여대가 팔리면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쏘나타는 최근 미국 ‘그린카저널’이 선정한 ‘2016 올해의 그린카’상 최종 후보 5종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다른 후보는 아우디 A3 스포츠백 e-트론, 쉐보레 볼트, 혼다 시빅, 도요타 프리우스 등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멘토링 봉사활동’은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쳤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 지역사랑방사단은 최근 광주시 동구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광주 청소년수련원 30여명의 학생들과 가을 정원 꾸미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9월 수출입 동반 하락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7%, 41.8% 줄어

광주와 전남지역 9월 중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40억8700만 달러, 수입은 41.8% 감소한 23억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줄었다. 하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17억4400만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반도체는 꾸준한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4억900만달러로 올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역흑자를 견인했다. 전남은 유가영향품목인 석유제품·화학품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6.5% 증가한 4억79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흑자의 효자노릇을 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12억5000만 달러, 수입은 8.3% 감소한 4억15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8억35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5%)·기계류(4.6%)는 증가한 반면 자동차(-1.8%)·가전제품(-11.7%)·타이어(-69.7%)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철강재(35.5%)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1.5%)·고무(-28.7%)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미국·동남아·중국은 증가했고, EU·중동·중남미·일본 등이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중남미·중동은 증가, 미국·일본·중국·EU 등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한 28억3700만 달러, 수입은 46.1% 감소한 19억2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기계류(37.5%)·선박(126.5%)은 증가했고, 화학품(-20.5%)·석유제품(-26.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54.0%)·석유제품(-54.6%)·철광(-37.6%) 등 주요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일본·EU·호주는 증가했고, 중국·동남아·미국·중남미는 감소했으며, 수입은 중동·EU·동남아·호주·중남미·일본·미국 등이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상의, 오늘 이기권 장관 초청 조찬 포럼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오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대연회장에서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해 유관기관 및 지역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라는 주제로 조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조찬 포럼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

련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찬 포럼을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